이발소 원장된 박보검… "마음과 정성이 무기죠"

'보검 매직컬' 30일 첫 방영
시골에 이발소 차린 3인
도파민·따뜻함 잡은 예능

"도파민이 폭발하는 예능입니다. 마을 분들과의 '우당탕탕' 속에 도파민이 있고, 세 분 배우를 보기만 해도 도파민이 터지죠."

tvN 새 예능 프로그램 '보검 매직컬' 연출을 맡은 손수정 PD는 2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순하디순하고 착하디착한 세 배우가 모여 무슨 재밌는 걸 만든다고 그래?'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30일 첫 방송 될 '보검 매직컬'은 이용사 국가 자격증이 있는 박보검과 그의 '찐친' 이상이, 곽동연이 외딴 시골 마을에서 머리와 마음을 함께 다듬어주는 특별한 이발소 운영기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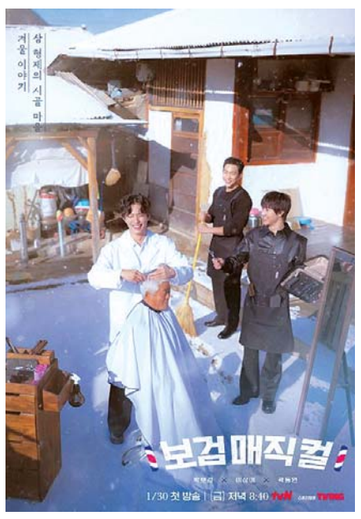
박보검은 헤어 담당, 이상이는 고객 응대와 네일 담당, 곽동연은 요리 담당으로 활약한다.

박보검은 군 복무 시절 이용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손 PD는 설명했다.

이어 박보검과 함께할 멤버로 이상이, 곽동연을 섭외한 데 대해 "박보검의 '애착 형', '애착 동생'이다. 결이 맞는 분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tvN의 '보검 매직컬' 제작발표회.



'보검 매직컬' 포스터. 연합뉴스

실제 이발소 운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박보검은 "이전에 이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는데 남성뿐 아니라 여성분들 커트까지 도와드리고 싶어서 미용사 자격증을 준비했다."고 했다. 또 "아무래도 파마가 돼 있는 어르신의 머리를 손봐드리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박보검은 "실력은 새싹 이발사지만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무기"라며 "그러다 보니 고객에게 할당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다. 한 분당 두 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전했다.

이상이는 그런 '박 원장'에 대해 "정시 퇴근이 어려운 대표"라며 농담을 건넸다.

손 PD는 '보검 매직컬'의 차별점으로 진정성을 꼽았다.

그는 "진정성 하나로 가는 프로그램이다. 이상이, 곽동연 두 분 때문에 영업을 끝내지 못한 적도 많았다. 네일아트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든지, 붕어빵을 계속 구워서 우리(제작진)가 '제발 그만했으면' 하는 순간도 있었다"며 "세 분의 진정성과 노력이 다른 예능과 정말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박보검은 또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가족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예능, 그게 우리 프로그램의 매력"이라고 강조했다.

키워드로 프로그램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에 이상이는 "사랑방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보냈던 시간은 재미있었고 따뜻했고 즐거움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곽동연은 '갓 구운 팥 붕어빵'에 비유했다. "갓 구운 걸 먹었을 땐 촉촉하고 달콤한 앙금이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삭한 겉부분이 씹히죠. 따뜻하고 달달한 힐링도 있지만 바삭한 끄트머리처럼 재미있는 장면도 분명 있을 것이고 그렇게 조화로운 프로그램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웃음)" 연합뉴스

배우 신은수·유선호 3개월째 교제

"지인 모임에서 만나"

동갑내기 배우 신은수·유선호(24)가 3개월째 교제 중이다.

신은수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관계자는 29일 "신은수가 유선호와 3개월째 만남을 이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사람은 지인 모임에서 만나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도 전했다.

신은수는 JYP엔터테인먼트에서 아이돌을 준비하다가 2016년 강동원 주연의 영화 '가려진 시간'에 출연하면서 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소나기'·'괴담만찬'·'고백의 역사'와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조명가게' 등에서 연기했다.

유선호는 2017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연습생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같은 해 웹드라마 '악동탐정스'를 통해 배우로 데뷔한 이후 이듬해인 2018년에는 미니앨범 '봄, 선호'로 가수로도 활동을 시작했다.


배우 신은수(왼쪽)와 유선호. 연합뉴스

유선호는 '소녀의 세계2', '노무사 노무진', '열녀박씨 계약결혼뎐'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배두나, 베를린영화제 심사위원 참여

배우 배두나(사진)가 다음달 열리는 제76회 베를린영화제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고 영화제 측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배두나는 영화감독 레이널도 마커스 그린(미국), 민 바하두르 밤(네팔) 등과 함께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곰상을 비롯한 경쟁 부문 수상작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장은 독일 감독 빔 벤더스다.

한국 영화계에서는 배우 이영애(2006년)와 감독 봉준호(2015년)가 이 영화제 심사위원을 맡은 적이 있다.



내달 12~22일 열리는 베를린영화제에서는 쥘리에트 비노슈 주연의 '퀸 앳 시' 등 22편이 황금곰상을 다툰다.

한국영화로는 홍상수 감독의 '그녀가 돌아온 날'이 파노라마 부문, 정지영 감독의 '내 이름은'이 포럼 부문에서 상영된다. 유재인 감독 데뷔작 '지우러 가는 길'은 성장영화를 소개하는 제너레이션 14플러스 부문에 초청됐다. 연합뉴스

'빌보드 파워 100'에 방시혁·박진영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설립자 등이 세계 음악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리스트인 '2026 빌보드 파워 100'에 올랐다.

빌보드는 28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이 포함된 올해 '빌보드 파워 100' 명단을 발표했다.

방시혁 의장을 비롯해 이재상 하이브 대표이사와 아이작 리 하이브 아메리카 의장 겸 CEO(최고경영자)는 음악 산업계 리더 40인을 꼽는 '리더보드' 부문 30위에 공동 선정됐다.

빌보드는 "하이브는 '멀티 홈·멀티 장르'(세계 각지에 K팝 제작 시스템을 도입해 현지 가수를 육성하는 방식) 전략을 통해 해외 거점을 구축하고, K팝식 아티스트 및 팬덤 개발 방식을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방 의장은 2020년, 2022~2025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6회째 '빌보드 파워 100'에 선정됐다.

빌보드는 "하이브는 아티스트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으로 단순히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현지화 모델을 조명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설립자. 연합뉴스

박진영 설립자를 비롯해 정욱 JYP 대표이사와 신현국 JYP아메리카 대표 겸 JYP CSO(최고전략책임자)는 '멀티섹터' 부문 12위에 공동 선정됐다.

빌보드는 "JYP는 2025년 2분기에 1억5700만달러(약 2158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며 "해당 분기의 하이라이트는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월드투어 덕분에 각각 342%·356% 증가한 콘서트와 굿즈상품 수입이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미국 록 상징' 스프링스턴, 트럼프 비판 신곡

'록계의 보스'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이민 당국의 미국인 사살 사건을 규탄하는 신곡을 발표했다.

28일(현지시간) 공개된 스프링스틴의 신곡 제목은 '미니애폴리스의 거리'(Streets of Minneapolis)다.

트럼프 대통령을 '트럼프 왕'으로, 미니애폴리스에 파견된 이민 당국 요원들을, '트럼프의 사병', '연방정부의 깡패들'로 비유했다.

또한 스프링스틴은 르네 굿과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 사살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당화 논리를 '더러운 거짓말'로 규정했다.

그는 "정당방위였다는 그들의 변명은 당신의 눈을 믿지 말라는 것"이라며 가사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직접 거명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프레티를 '암살자'라고 표현했고, 놈 장관은 굿이 국내 테러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들의 영상분석에 따르면 프레티는 총을 집어 들지 않았고, 요원들에게 이미 제압된 상태에서 총격을 당했다. 연합뉴스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제28대 회장



홍 희 철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제28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덕수리 마을회
노인회 · 부녀회 · 청년회 일동

승 축 진
CONGRATULATIONS
서 기 관
(법제처)



강 민 정

서기관(법제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진주강씨 염통악파 대옹파 종친회
회 장 강 순 희 외 회원 일동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소방서
직할남성의용소방대 대장



부 석 배
(제주소방서 직할남성의용소방대 대장)

제주소방서 직할남성의용소방대 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소방서 직할남성의용소방대 대원 일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제주의 대표신문 ihalla.com
한라일보가
大勢(대세)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01 도내 언론사 최초 'GD마크' 품질인증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02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03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04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구독 750-2330·서귀지사 732-5552